

2024년 7월 14일 (아바드의 사람들 17) 산상수훈의 사람들 (마 5:1-12)

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자들로서 어떤 모습으로 그 나라를 빛내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.

[1] 복을 담은 그릇을 가진 사람

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빛낼(드러낼) 제자들에게 환영과 격려의 말씀을 주시며 그 나라의 백성들의 본분과 성격을 규명해 주십니다. 하나님 나라는 백성들이 마음이 가난하고, 슬퍼하며, 온유하고, 의에 주리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. 이것은 내면의 변화, 즉 가치관이 변할 때 빛어집니다.

무엇이 중요한지를 발견하는 눈(가치관)이 바뀌면 사람과 세상을 보는 안목이 바뀌고, 안목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, 행동이 바뀌면 서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.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.

교회를 볼 때, 예배를 드릴 때, 사람이 맺는 관계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진리에 합당한 방향과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.

[2] 팔복의 선언 -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람됨

그래서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사람됨은 이러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.

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다!

하나님을 향한 갈망 외엔 다른 것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입니다.

복 있는 사람은 슬퍼하고 애통해 한다!

예수님 믿으니 죄를 분별하고 슬퍼합니다. 이런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이 오직 위로가 됩니다.

복 있는 사람은 온유하다!

하나님 말씀에 선을 넘지도 못 미치지도 않게 적정 수준에서 순복하고 행동하는 성품을 말합니다.

복 있는 사람은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!

하나님의 의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품입니다. 주님의 의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.

복 있는 사람은 자비를 베푼다!

어떤 사람도 영적으로 깨어진 모습을 간파하며 깊이 공감하고 도울 수 있는 성품을 말합니다.

복 있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다!

말씀으로 깨끗해진 것을 말합니다. 말씀이 장악하여 다른 것이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.

복 있는 사람은 평화를 이룬다!

화목과 하나됨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사람입니다.

복 있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!

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힘센 자들에게 눌리고 빼앗기는 것을 말합니다.

복 있는 사람의 이런 모습은 세상에 역행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. 세상은 이들의 진가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.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.

요 17:14 "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,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. 그것은,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"

CS Lewis, "전 세계가 절벽을 향해 달릴 때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사람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"

그러나, 이들은 사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도록 참으로 세상을 가꾸는 아바드의 사람들입니다. 하나님은 산상수훈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완성하실 것입니다. 이것을 위해 사랑하고 하나됨, 화목을 이루어 가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.

사랑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능력을 발휘합니다. 그 결과,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성취에 이르는 것은 위대한 성취이며, 고귀한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.

가정, 일터, 교회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된 아바드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원합니다.

[나눔의 질문]

1. 팔복의 선언은 하나님 나라의 복 받은 백성들은 이러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무엇이 나를 이러한 모습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까요?
2.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는 어떤 가치관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.